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76367

2014년 8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정 종 숙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2014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정 종 숙

Collection @ chosun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지도교수 정 은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정 종 숙

dCollection @ chosun

정종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목 차

표목차 ····· iii

ABSTRACT ····· iv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 6

2. 지체장애의 개념 및 특징 ····· 9

3.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 15

4. 선행연구 분석 ····· 23

Ⅲ. 연구방법 ····· 30

1. 연구 참여자 ····· 30

2. 연구도구 ····· 31

3. 연구절차 ····· 32

4. 자료처리 ····· 33

dCollection @ chosun

Ⅳ. 연구결과 ····· 34
1.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전반적인 인식 ····· 34
2.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35
3.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36
4.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38
5. 경제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40

Ⅴ. 논의 ····· 42

Ⅵ. 결론 및 제언 ····· 46
1. 결론 ····· 46
2. 제언 ····· 46

참고문헌 ····· 49
부록 ····· 57

d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0
<표 Ⅲ-2>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 32
<표 Ⅳ-1>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 ····· 34
<표 Ⅳ-2>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35
<표 Ⅳ-3>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36
<표 Ⅳ-4>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38
<표 Ⅳ-5> 경제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40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By Jeong, Jongsook

Advisor : Prof. Jeong, Eunhee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how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 handicapped people. To do this research, we analyzed student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ir gender, experience of taking integrated classes, school records, and their family's economic status. Based on the analysis,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programs aimed at reducing students' prejudice toward handicapped people and encouraging more positive attitudes and empathic understanding.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four hundred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M city. The process of the data to find out their perception regarding the handicapped was done through an independent variable t-test for their gender and the experience of taking integrated classe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done in terms of their school test records and their family economic status. All statistics were computed using the 21st version of IBM SPSS Statistics. The

dCollection @ chosun

significance level of the statistics was .05, and Post-Hoc Testing was done using the Scheffe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handicapped showed that it was neutral level.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handicapped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Female students showed a more positive attitude in their perceptions of the handicapped than did the male students.

Third, students' experience taking integrated classes did not show statistically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ther word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in integrated classes and the students who did not.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udents' perception of the handicapped based on their school test records. Though there was not a substantial difference regarding students' prejudice toward the handicapped or their friendships with the handicapped, the group with the higher school test records showed better or stronger perception in terms of the attention and empathy for the handicapped.

Fift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s' perception of the handicapped according to their family's economic status. In other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handicapped do not appear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higher or lower economic family status.

dCollection @ chosun

Ⅰ.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268만 여명의 장애인이 있고 출현율은 2000년 3.09%, 2011년 5.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수와 출현율이 증가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 복지 시책의 다양화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많아지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 및 각종 사고의 증가, 만성질환 등에 의한 장애의 발생증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처럼 후천적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장애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김숙경 2007).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무시와 차별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으로 장애인교육, 복지의 선진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국가 제도적 기본 틀은 상당 부분 구축 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학교, 일반사회, 사업장 등에 아직도 남아 있고 장애인의 독립 또는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이유훈 외, 2003).

이미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공포되고 2007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행·재정적 제도가 정비되고 교육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 등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의무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

dCollection @ chosun

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져 오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2).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유.초.중.고에서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속에서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미 성숙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의 일반학생들은 장애 학생을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즉 인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형성된 일반학생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장차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임양호, 2007).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커다란 한 축은 사회통합이며 이 사회통합은 '정상화'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정상화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이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통합교육의 확산추세에 따라 특수학급의 장애청소년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 청소년에 대한 비장애청소년의 인식전환과 수용적인 태도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올바른 이해와 태도가 통합교육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기간인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미래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즉, 현재 70% 이상의 많은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되어 있으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장애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적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통합교육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김주홍 외, 2013).

dCollection @ chosun

실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장애인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개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는 '장애'라는 것이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가 가지는 가치판단이며 사회의 이해와 포용정책에 따라 가변적인 것임을 알려 준다(박원희,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정도를 조사한 노미리(2008)는 비장애고등학생의 감정이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과 활동영역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강환일(2010)은 초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유형 분석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비장애 학생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똑같은 소중한 사람임에 동의하고 장애학생을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현옥(2011)도 초등학교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은 비교적 긍정적이고 통합교육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조소이(2014)는 장애인식 교육과 통합교육경험은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 김현숙(2011)은 통합교육 경험이 일반유아의 장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합교육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통합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유아들보다 장애인식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조사결과 바람직한 장애인관을 형성하도록 장애인식 및 체험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이제까지 장애인식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천인준(2009)과 하태용(2011)은 활동보조인들의 장애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긍정성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접촉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장애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되었다. 김유희(2005)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접

dCollection @ chosun

촉했을때 긍정적으로 변화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접촉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장애 유형에 대한 위계적 순서가 존재한다고(Clough, Lindsay, 1991; Forlin, 1995; Thomas, 2000; Roomet.al.) 보고하고 있다. 배형일, 오원석, 이윤미(2009)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조사에서 선호되는 장애유형 으로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등이며 선호되지 못하는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 정신장애, 간질장애, 에이즈로 나타났다. 최국환(2003)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들도 신체장애인보다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게 덜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장애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장애인에 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자 장애인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이들 청소년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김태성 2005).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사고의 틀이 정형화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인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 인식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와 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011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은 28.77건으로 2005년도 22.23건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체 장애인의 장애인식을 우리

dCollection @ chosun

나라 사회상과 관련하여 그 주관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정명실,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학생 중 70%의 학생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물리적인 통합비율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일반학생들의 편견과 무관심, 중도 지체장애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장애유형 가운데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인식 및 태도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주제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성별에 따라 중학생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 성적에 따른 중학생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집안경제 상태에 따라 중학생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라 중학생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dCollection @ chosun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미신적 선입견이라 할 수 있다(문동팔, 1996). 인식이란 어떤 대상을 감지하고 이를 분별, 판단하는 의식의 작용이며 또한 이성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과 사물간의 관계에 관하여 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의 인식 기능은 인생의 본질이나 가치를 탐구하고 자기 존재를 파악하고 행위의 정당함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행동이 인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김유희 2005). 이규태(1981)는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형성 요인으로 보편인간지향, 완전인간지향, 욕구불만 전이, 초자아의 결여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문학작품이나 속담 속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경멸당하고 열등시 되었던가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장애인을 부르는 한국말에서도 멸시하는 요소가 완연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매우 많은 것을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사회적으로 판단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 역시 기본적으로 현사회의 정치 경제적 구조와 중심적 가치들에 의해 구조화 되고 이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어떻게 장애를 투영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역시 그러한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김도현, 2007). 손정대(1985)도 비장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체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손상이나 실체의 일부 또는 기능의 일부가 구비되지 않는 불구를 갖고 있는 자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대부분 외모에 나타난 불구나 손상을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대 산업사회가

dCollection @ chosun

요구하는 생산력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외모에서의 선입관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식의 개념은 내용과 초점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단계에서는 장애인이 불구자로 인식되었으며 사회 하층신분으로 낙인과 함께 억압받는 존재였고 2단계에서는 기술 산업화의 영향으로 물질적 풍요는 나타났지만 능력을 중시한 가치관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리가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는 사회의 재통합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박은경, 2005).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재인식되어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를 통해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개념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적 사회적 생활 중심 개념으로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자립적인 생활과 기능의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 있으나 이익섭(1990)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다음의 다섯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상품이론(commodity theory)으로 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들을 상품화함으로써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산력이 종종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며, 현대사회는 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노동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장애인에 대한 상품성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한다.

둘째, 편견이론(prejudice theory)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선입견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반 대중이 장애인에 대해갖게 되는 이해는 결국 이야기나 설화 등을 통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인식형성이 된다고 본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부족은 장애인들을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

dCollection @ chosun

며, 다시 이러한 불평등이 장애인들에 이해부족을 낳는 악순환 현상을 초래한다.

셋째, 분리이론(isolation theory)으로 장애인들이 일반세계와 접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이 갖는 실망이 적고 장애인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는 주변 일들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들이 느껴야 하는 고통이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과 사회가 상호간에 분리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즉 장애인은 자신이 자아(ego)가 변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동기가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고서 먼저 사회에서 불리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현대적인 조건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져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며, 이러한 분리현상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넷째, 재활이론(rehabilitation theory)으로 장애인을 치료하고 훈련하는 것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반인은 정상이고, 장애인을 비정상의 상태로 보고 이 비정상을 가능한 교정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은 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완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부재이론으로 국가정책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행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가 다른 복지영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비교우위가 낮기 때문에 아무런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뜻하기보다 파악하였음에도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분리하려는 이러한 이론들은 우리사회에서 오랜 기간을 통하여 장애인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며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재인식하려는 여러 시도나 노력들을 저해하는

dCollection @ chosun

요인으로 남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모의 장애체험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 정보는 책, 강의, 토론 또는 영화나 시설견학의 형태로 제공 되어진다(이태훈, 2007). 장애인과의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수반하지는 않으며, 장애인과의 단순한 접촉 경험과 영화, TV,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을 갖게 될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서동명, 1999).

모의 장애체험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비장애인이 장애를 체험함으로써 장애아동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비장애 아동을 준비시키는 것이며(노은미, 1996), 눈가리개를 하고 흰색지팡이를 짚고 길을 걸어 보거나 휠체어를 타면서 자신이 마치 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태훈, 2007)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관련단체나 초,중,고학교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홍성윤(2002)의 연구에서는 장애체험을 자의적으로 한 집단이 장애체험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노승현(1999)은 장애체험으로 인한 효과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장애체험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될 때,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지체장애의 개념 및 특징

1) 지체 장애의 개념 및 유형

(1) 지체장애의 개념

지체장애는 사지와 체간의 합성어로 신체의 사지와 체간이 적절하지 못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지체장애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정의는 1920년 6

dCollection @ chosun

월 5일 공포된 독일의 프로이센 지체장애아 보호법 제 9조에서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골 · 관절, 근 또는 심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간이나 사지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장애가 되어 일반작업장에서는 생업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되는 자'를 지체부자유자라고 하였다. 미국 백악관 회의 특수교육분과에서는 "정형 외과적 의미에서 골, 관절의 기능적 장애나 기형에 의한 결함아동으로서 그 상태는 선 ·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환에 대한 부주의 또는 무지에 의해 악화된 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체장애는 절단장애와 중추신경계장애, 관절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포함하는 의학적 의미의 장애를 말한다. 또한 일상생활 및 교육현장에서는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불리한 조건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신체장애라고도 한다(송준만 외, 1990).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 지체장애란 기능 ·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조건 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체장애의 용어는 최근에 운동장애(motor impairment) 또는 정형외과적 장애(orthopadical handicap)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운동 장애라는 것은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 등과 같이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기 쉬우며 정형외과적 장애는 뇌성마비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장애에 기인하는 지체장애와 구별하며 그 외의 지체장애를 정형외과적 장애라고 한다(손홍배, 20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과 '장애인 복지법' 에서 지체장애에 대한 정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로 인한 교육적 성취의 제한을 언급하고 급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반면 '장애인 복지법' 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의 급수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유형의 명칭사용에 있어서는 모두 지체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의 개념은 뇌성마비와 같이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인지적 장애 등의 기타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는 반면, '장애인 복지법' 에서는 별도로 뇌병변 장애라는 용어를 두어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

dCollection @ chosun

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체장애는 단순히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만을 지칭한다(박은혜, 김정연, 2011).

(2) 지체 장애의 유형

지체장애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원인도 많이 있다. 지체장애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선천적 결함으로 생긴 장애이며, 다른 하나는 외상으로 인한 장애이다. 여기에는 근육, 인대 등 신경계의 결함에 의한 것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뇌성마비(cerebral palsy), 근육위축증(muscular dystrophy), 척추손상(spinal cord injury), 기타장애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국립특수교육원, 2005).

① 뇌성마비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지체장애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출생 후 혹은 출생 시의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의 부조화와 자세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뇌의 손상이 주로 뇌의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발달에 저지하여 일반아동에서 나타나는 생후 연령에 따른 발달에 이상을 가지는 것이 뇌성마비 아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뇌성마비의 운동장애는 뇌의 기능장애에 의한 신경결함 중에서도 특히 운동신경장애에 의해 아주 심각한 운동장애로부터 경미한 운동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뇌성마비는 비정상적인 반사기제로 인하여 자세유지의 곤란, 근 긴장, 운동 발달 곤란 을 초래하고, 운동기능 면에서의 발달특성은 보행이나 앉고 서는 단순한 동작은 물론이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고 놓는 등의 동장에도 현저한 문

dCollection @ chosun

제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성마비 청소년 중에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는 인지장애(60~70%), 시각장애(40%), 청각장애(20%), 간질(35%) 등이다. 뇌성마비는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련형(spasticity)은 근 긴장이 높고 근육은 과잉 강직이나 과잉 동작을 나타낸다. 정상적인 수축을 할 수 없으며 움직일 수 있다면 아주 느리거나 경련이 심하다. 경련형은 긴장도가 아주 높다. 뇌성마비의 50~60%가 이에 속한다.

둘째, 불수의 운동형(athetosis)은 근 긴장의 동제가 되지 않고 움직임이 불규칙하다. 사지의 대근육 통제도 어렵고, 긴장이나 정서적으로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되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하고 아슬아슬한 경우를 당하게 한다. 뇌성마비의 25~30%가 이에 속한다.

셋째, 운동실조형 뇌성마비는 드문 형태로서 균형 감각과 높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종종 협응 능력이 떨어지고, 글쓰기나 셔츠 단추 채우기 같은 빠르거나 정확한 동작을 시도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또한 의도적 진전(intention tremor)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진전은 책을 잡으려고 할 때처럼,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용되는 신체 부위에 침범되고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물체에 다가갈수록 악화되는 떨림(trembling)을 일으킨다. 운동실조형은 뇌성마비의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넷째, 혼합형은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형태중 하나이상의 증후군을 갖는 것이 일상적이다. 가장 일반적인 혼합 형태는 경직성과 무정위 운동의 혼합이지만 다른 결합 형태도 가능하다.

② 근육위축증

근육위축증(muscular dystrophy)은 근육의 단백질이 상실되면서 점차 다른 조직으로 확대되어 간다. 그리하여 자동근육체제는 점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dCollection @ chosun

된다. 근위축은 사춘기 이후에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유아기에서 아동기 사이에 나타난다. 구본권 등(2004)은 진행성 근위축증 아동이 쉽게 피로를 느끼며, 걸을 수 있다고 해도 장거리 여행 시에는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③ 척추손상

척추손상(spinal cord injury)의 합병증인 대마비나 사지마비는 이동에 제한을 받는다. 잠재적인 문제로 비뇨기 계통의 감염, 호흡기 감염, 욕창 등이 포함되어 느린 순환 운동이나 근위축이 일어난다.

④ 기타

골의 양과 질에서 결함이 있는 골형성부전증, 유전성이며 근육이 상실되어지는 진행성 척추근위증, 관절과 주위 조직의 만성적이 동통,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다.

2) 출현율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을 지체장애가 있는 모든 사례건수로 집계하면 인구 천명당 28.77건으로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지체장애인 인구는 1,372.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체장애는 전체 15종의 장애유형중 가장 큰 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단위는 사람(person)이 아니라 건수(spell)로서 지체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 즉, 단순 지체장애 및 중복장애로서 지체장애를 갖는 사람의 합계로서 계산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 출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60대중반 이후부터는 95.96건, 70대

dCollection @ chosun

이상에서는 110.46건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이 33.36건으로 여자 24.30의 출현율보다 훨씬 높다. 이 지체장애 출현율을 과거의 실태조사 결과와 개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2005년도의 22.23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출현율이 높아짐은 물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체장애의 출현율도 80세 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장애 등록율의 증가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등록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장애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장애인식 관련 연구 결과들을 통해 편견, 차별, 사회적 거리, 거리 낙인론 등의 개념이 강조되었으며,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적용되었다(김순옥, 2007).

지체장애의 장애부위는 하지의 장애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지가 23.5% 척추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하지 한쪽과 상지 한쪽이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하지 양쪽이 좋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특히 척추 부위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별 지체장애의 부위에 있어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1)

지체장애의 장애형태를 보면 절단, 마비, 관절장애, 변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절장애가 67.2%로 가장 많고, 마비 15.5%, 절단 12.2%, 변형 5.0%순으로 나타났다. 관절장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으며,상대적으로 마비와 절단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 절단이 많고, 여자는 관절장애가 특히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체장애의 발생시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출생 이후에 발생되고 있어 지체장애의 특성 상 후천적 원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이전의 2008년의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체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질환과 사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보면 질환에 의한

dCollection @ chosun

원인 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2008년 실태조사에 비해 다소 높아진 비율이며 성별로는 남자 보다 여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장애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았다(보건복지부, 2011).

한편, 사고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도 16.5% 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의 경우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기타 사고와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탑승자로서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주로 보행자 교통사고도 유사한 비율로 높아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2011).

3.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란 성장하는 상태에 있는 일정기간을 의미하며, 가변성과 열정이라는 특성을 강조하여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 이유기,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권성혜, 2002). 역사적으로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농경사회에서는 청소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의 등장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를 고유한 발달시기로 인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는 교육받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특히 학교 교육의 의무화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홍봉선 외, 2004).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규에서는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

dCollection @ chosun

은 18세 미만을 요보호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는데 연령층은 대체로 12~13세부터 20세 경까지로 보고 있으며, 생물학에서 보는 청소년기란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적·문화적 특성과 남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생물학에서는 청소년기란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제 2의 증세인 신체적·생리적 성숙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성적 성숙은 여자의 겨우 12~13세에 시작되고, 남자는 14~15세에 시작되며, 이러한 육체적 성장은 여자의 경우 18~20세에, 남자의 경우 20~22세에 멈춘다고 본다. 사회학에서는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단계로서 아동의 역할은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하였다(김장헌, 2000).

이렇듯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다루는 분야에 따라 다르며, 같은 분야라도 그 구분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1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소년의 연령구분은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박성희, 200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인간성장 주기의 발달적 기간이라 정의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2)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가 갖는 발달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특징을 한 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박성희, 2003).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생리적·신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남녀 모두 성기능의 발달이 현저하고 남녀간의 신체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2차 성징이 나타난

dCollection @ chosun

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속도는 남녀 모두 다르며, 이시기의 청소년 대부분은 자식의 신체적·성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고 수치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신체 각 부분의 불균형적 발달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이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적응 현상을 초래 한다(김장헌, 2000).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여자 10세, 남자 13세를 전후해 성장 급등기를 맞이하다가 여자 13세 남자 15세경이 되면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며(한상철, 1998), 청소년기의 급속한 신체적 변화과정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동시에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게 되어 내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김세봉, 2005).

둘째, 심리적·정신적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혼란과 정서불안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의 위기, 반항성, 소속에서의 이탈, 신체적 급변과 정서의 가변성, 사회적 미성숙성 등으로 요약되고(김장헌, 2000), 청소년들은 성충동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정서적 혼동을 경험한다(한상철, 1998).

셋째,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한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와 같이 가족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종래의 여러 가지 기능이 학교나 교회 또는 직장과 같은 곳으로 많이 이양된 사회에서는 가족 성원들이 가족 내에서만 배운 생활의 지식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족 밖에서 따로 친구 집단을 형성해서 각자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김장헌, 2000). 특히,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사회적 압력으로도 작용하면서 사회성 및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각자가 자기를 스스로 수용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김하연, 1991). 청소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인 관계를 구축한다(한상철, 1998).

dCollection @ chosun

현대산업사회가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을 거의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새로이 부딪치는 일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공 및 실패의 경험과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새로운 변화를 수행해 나아가게 된다(김태성, 2005).

넷째, 지적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지능을 12-14세까지 대체로 급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발달속도가 완만해 지며, 17-18세경에 정점에 달한다(한상철, 1998). 인지의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 지며,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개념적 조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건이나 현상과 관련된 변인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사고능력이 발달하여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김동배, 2000).

다섯째,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하여 책임감과 자립능력을 보유하고 성숙한 사회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청소년들에게 동기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성취하게 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적용되는 요소들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아서, 거꾸로 역경을 헤쳐 나아가기 위한 능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가족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하여 독립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약화 내지는 포기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은 매우 일찍부터 나타나지만,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는 가족이 심리적인 지지의 기본적인 배경으로서의 역할과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일에 대한 기준 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때이다(김태성, 2005). 그들이 사춘기를 맞이할 즈음 그들의 부모 또한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 자신이 이 시기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부모 역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dCollection @ chosun

있는 것이다(한상철, 1998).

3) 지체장애 청소년의 특성

지체장애에 대한 세계최초의 과학적 정의는 1920년 공포된 독일의 프로이센 크뤼퍼 보호법 제9조로,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골 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간이나 사지의 사용이 불수의적으로 장애 되어 일반 노동 장에서는 생업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되는 자를 지체부자유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의 결손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의 상실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크다(오영희, 2005). 지체장애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지적특성으로 신체적 능력에만 결함이 있는 지체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지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지체장애의 유형과 심한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다. 지체부자유학생 중 뇌성마비학생은 지적인 결함을 보이는 학생이 40~60%이며 보통 또는 그 이상의 우수한 지적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체부자유 학생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자주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거나 가정에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지능과 학업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학문 성취에서 같은 연령의 청소년보다 불리한 여건에 처하기 쉽다. 또한 지체장애 유아들의 경우에 어려운 과제에 대한 지구력이 낮고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덜 목표 지향적이며,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에 참여도가 낮다고 보고 되기도 하였다(김은숙, 2005). 지체장애 학생은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개념도 유치하고 왜곡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진, 1992). 지체장애 학생은 학습의 준비성을 이루는 경험적 배경 면에서 직접경험은 물론이고 간접경험마저 제한되어 있어 각종 사물이나 사상에 관한

dCollection @ chosun

개념 형성이 유치되고 왜곡되어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체장애 학생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경험적 배경과 지적능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개별화된 교육계획과 수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신수진, 2007).

둘째,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강호진(1986)은 지체장애 학생의 자아개념 특성 연구에서 정상학생보다 내적, 외적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안정성이 없고 유동적이며, 자기방어적이고, 경계심이 많은 자아개념의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사고로 후천적인 지능장애를 가지게 된 아동들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능력과 생활스타일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고 장애와 이로 인해 바뀐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따른 스트레스가 따르게 된다.(김은숙, 2005). 자기 지지와 수용을 못하여 결국에 남을 지지하고 수용하는데 어렵고 실패한다. 그래서 대응력이 약하고, 우울한 편이며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전망과 기대감이 낮다. 또한 사회적인 연대감과 공동체감을 가질 수 없을 때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민은식, 1975). 뇌성마비아 중에는 상당수가 정서적 미성숙과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적고, 동기결여에서 기인한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나, 과제가 숙달될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 정상적인 요구를 발달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정재권,안병즙, 2001).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승인의 욕구, 집단속에서 함께 행동하고 싶다는 소속에의 욕구,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신 경험의 욕구, 무엇인가 완성하고 싶은 성취의 욕구 또는 독립하여 자유롭게 삶을 영위 하고자 하는 독립에의 욕구등과 같은 것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체장애인은 이러한 욕구가 저지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오영희, 2005). 지체장애 청소년의 성격특성에서 남녀별 비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신체적 장애에 과도한 집착을 하고 고립감, 열등감, 자기불만감에 빠져 있으며, 대인관계에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가 심할수록 신경증적, 정신병적, 반사회적 이상 성격의 경향이 높았다(김현식, 1991).

셋째, 신체운동 및 언어적 특성은 지체장애 학생들은 근육의 협응이 어렵고

dCollection @ chosun

비정상적인 운동패턴의 영향을 받으며 특정근육이 마비 또는 위축되거나 신체 일부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동성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발화에 필요한 구강 주변의 여러 근육들의 조절과 협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거나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지능력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체장애 청소년들 중에는 단지 표현만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은숙, 2005). 뇌성마비에 의한 지체장애는 행동이나 언어의 불일치,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시설 등의 생활환경이 원인이 되어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키기 쉽다. 뇌성마비 자체가 보행을 어렵게 하지만 지각장애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보행에 더욱 더 장애를 초래하여 독립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교육이 요구된다(명경미, 2006). 지체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언어장애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언어를 표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므로 점점 소극적이게 된다. 명료하게 말을 배우지 못했거나 또 다른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하지 못한 아동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한다. 의사소통의 성취감 측면에서 반복되는 뇌성마비 아동의 실패적 경험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신수진, 2007).

이소현과 박은혜(2006)는 지체장애 학생은 지적수준 뿐 아니라 일반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지체가 있다고 하였다. 즉, 교사나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하거나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표현 언어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방해를 받으며 통합된 환경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4) 지체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6항, 2008)라고 정의 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지체장애 학생들은 주로 중도 뇌성마비로 인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체적 어려움과 인지적 어려움을 모두 고려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박은혜, 임장현, 2010). 교사들도 장애가 중증인 학생은 통합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고한다는 사실은(이신동, 김경희, 2006; 정주영, 2004)그만큼 심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현장의 지원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중 지체장애 학생은 총 11,233명이고 이중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입급된 학생은 4,214명, 일반학급에 입급된 학생은 3,325명으로 약 70%의 학생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의 편견과 무관심, 일반교사의 특수교사에 대한 이해와 책무성 부족, 행정책임자 및 교사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박승희 외, 2001).

중도 지체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의 부정적인 태도, 일반 학교 시설 이용의 제한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갖추어진 특수학교를 선호하여 진학하며,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의 중도 · 중복화와 학교 간 협력체계 형성의 곤란, 교사간 협력체계 형성의 역부족, 효과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 구안의 어려움, 중도장애 학생과 비협조적인 일반학생에 대한

dCollection @ chosun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발생 등으로 인해 통합교육을 실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정연, 유선화, 2009).

4. 선행연구 분석

1)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로부터 많은 편견과 차별, 인권의 침해 등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7년에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를 연구한 쉴러(Shiller)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대할 때 긴장감을 느끼며, 장애인과 친밀한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장애 아동의 능력이나 특수 교육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학과 취업을 거부하며, 권위주의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돕고 교육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장애인은 이상성격의 소유자여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며, 죄에 대한 벌로 장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며, 장애인은 무능력하여 부모나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한영숙, 2001, 재인용). 또 Rabkin(1974)은 비장애인들은 특별히 정신장애에 대해 놀랍고, 수치스럽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폭력적이고, 난폭하여 위험하고, 신뢰성이 없고, 불안정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가치 없는 힘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한영숙, 2001, 재인용).

김태오(2002)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이미지에 대한 결과는 자존심이 강하다, 사귀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과의 결혼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권한다'와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이 89.2%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면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편견의 형성요인은 어느 한 사고방식에 연유한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며 시대적 사상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최국환(2003)은 장애인을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신체장애인보다는 정신장애인에게 덜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한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공선희(2013)는 일반인 425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Choi와 Lam(2001)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이 한국거주 대학생들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혈연관계에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볼 수 있다. Choi와Lam은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동양 문화권에서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며 도움을 청하는 행동 또한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조현정, 2008, 재인용).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예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무능력자로 취급되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특유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왔다. 이것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 부정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갤럽(2001)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사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순수하다, 예의가 바르다’를 꼽은 반면, 일반인들은 부정적인 항목(자존심이 강하다, 사귀기 힘들다)와 긍정적인 항목(순수하다, 예의가 바르다)을 고르게 꼽아 장애인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직도

dCollection @ chosun

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관과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관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제거'가 가장 많았다. 그만큼 신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은 내용과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부당한 편견에 의해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선행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영숙(2001)이 대학생의 장애인 접촉경험과 장애인 편견과의 관계에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비 장애학생과 장애학생과의 수강경험이나 대화경험 등 단순하고 피상적인 접촉보다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을 하거나 친한 친구로 지내는 친밀한 경험이 편견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며, 친밀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형성된 긍정적인 태도와 친근감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즉 집단 간의 편견을 해소하는 데에는 공식적이거나 피상적이고 단순한 접촉보다는 태도 대상과의 직접적이며 상호 작용적인 친밀한 접촉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이다. 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을 알아본 결과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장애인의 능력과 성향에 대해 편견이 적으며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더 가깝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 장애인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 자신과 가까운 장애인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이종남(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철원(2000)은 여자(학생)가 남자(학생)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반면 천인준(2009)은 여자보다 남자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며 자원봉사 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dCollection @ chosun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60대가 가장 긍정적이며 다음으로 50대,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일조(2004)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인 인식은 긍정적이나 실제의 행동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며 이종남(1994)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서는 젊은층,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학력에 따라서는 고학력자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국환(2000)은 재활기관 직원들 사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으며 정선영과 백형의(2005)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권위주의와 사회생활 제한 지역 정신보건 개념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정옥희와 이희경(2004)은 사회복지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교연구에서 종교가 있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혜숙(2003)은 신체적, 대인적, 거리감 모두 주변 가까운 사람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거리감이 대체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나 친적 중에 장애인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장애인에게 도움도 주고 더 우호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천인준(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주변에 장애인을 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김수연(2012)은 장애인들의 대인관계 전반의 특성 중의 출발점인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자신을 바라봄에 있어서 위축되어 있거나 의기소침해져 있으며 이는 신체적 제약이 사회활동을 활기차고 거침없이 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냈다. 오원석(2011)은 예비교사들은 장애인과 상호작용에서 비교적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행동장애 및 신체 감각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하여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학습장애 학생의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통합교육의 실행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은

dCollection @ chosun

부족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변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은 장애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는 직접적이고 질적인 친밀한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류수경, 1992 : 천인준, 2009). 하태용(2011)은 장애인과의 접촉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인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의 접촉형태, 접촉경험의 질이 직접적이고 구조화(Donaldson, 1980)되어야 하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태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 학생의 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장애 학생의 인식과 태도가 좋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통합된 환경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에게 빈번하게 거부되고 있으며(Fortini,1987),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Esposito,1983). 1974년에 행해진 Sheare의 연구는 분리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 1-3명이 부분 통합된 학교의 학생이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부분 통합된 학교의 학생이 지적장애 학생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었다. 적절한 교육적 중재를 하였을 때는 지적장애를 포함한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 학생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이연구들은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애와 지적장애 에 대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을때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정선화, 1993).

홍성윤(2002)은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의 태도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태도보다 감정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인지 태도, 행동 태도, 전체 태도에서도 미미한 차이

dCollection @ chosun

에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학년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인지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감정, 행동, 전체 태도에서 미미한 차이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면 인지태도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미미한 차이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장애인 접촉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인지 태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이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행동 태도, 전체 태도에서도 미미한 차이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나 감정태도에서는 오히려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체험 유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인지 태도에서 자발적인 장애체험이 있는 사람이 장애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유의미한 차이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인지, 행동, 전체 태도에서 미미한 차이지만 오히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진숙(2002)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더 우호적이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임양호(2007)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고등학생의 1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관적, 객관적 태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애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남녀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고, 조현정(2008)의 연구에서 지적장애 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준비 되지 않는 접촉경험은 비장애청소년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김지영(2012)의 연구에서 특수교사의 통합학급지원은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친구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백영태(2011)는 전문계 고등학교 통합학급 일반학생의 장애수용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장애 수용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어 성별에 따른 장애수용 태도가 여학생이 남학

dCollection @ chosun

생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길혜옥(2005)의 연구와 불일치했다. 허진(2011)은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년에 따른 태도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인지, 감성, 행동수준에서 더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2008)는 교제 영역에 대한 수용태도, 생활영역에 대한 수용태도, 학습영역에 대한 수용태도에서 초등학생의 수용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수용태도가 긍정적이고 중학생의 수용태도가 가정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일반학급학생의 수용태도는 일반적으로 저학년일수록 더 수용적이나 고학년일수록 더 수용적이라는 선행연구도 있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dCollection @ chosun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라남도 M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들로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중 남자중학교에서 140명, 여자중학교에서 140명, 남녀공학중학교에서 140명의 일반학생을 임의표본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선정된 4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훼손 및 미완성질문지 20부를 제외하고 400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1>과 같으며 성별, 통합학급 경험유무, 학교성적, 경제상태 등에 대한 백분율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항목		*n*	%
성별	남	198	49.5
	여	202	50.5
통합학급 경험 유무	유	258	64.5
	무	142	35.5
학교성적	상위권	80	20.0
	중위권	220	55.0
	하위권	100	25.0
경제상태	상	80	20.0
	중	280	70.0
	하	40	10.0

총 응답자 400명 중 여학생이 50.5%, 남학생이 49.5%로 남,녀의 비율 차이는

dCollection @ chosun

거의 없었으며, 지체장애인과 함께 공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4.5%로 지체장애인과 함께 공부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35.5%보다 많이 나타났고, 학교 성적은 중위권이55%, 상위권20%, 하위권25%로 성적이 중위권의 학생이 비교적 많았다. 경제상태의 경우 상 20%, 중 70%, 하10%로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연구 도구

중학생들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종남(1994)이 번안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진수(2009), 공선희(2013)등이 신뢰도를 검증받은 Siller의 장애 태도 요인 분석 척도(Disability Factor Scales)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차 완성된 설문지에 대해 특수교육전문가 1인과 특수학급 교사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주제부합도, 내용중복, 문장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30문항을 완성하였다. 아래의 <표 Ⅲ-2>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문항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10문항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 5점 척도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으면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다. 역문항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영역의 7문항 Ⅰ-1, Ⅰ.3, Ⅰ-4, Ⅰ-6, Ⅰ-7, Ⅰ-8, Ⅰ-9,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 5문항 Ⅲ-1, Ⅲ-2, Ⅲ-3, Ⅲ-5, Ⅲ-8 으로 역코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한 결과 전체 .90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dCollection @ chosun

<표 Ⅲ-2>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영역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1.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의존성, 상급학교진학, 위생상태, 할 수있는일, 시험성적보조도구, 친구 소개, 결혼생활, 이성관계, 친근감.	10	1.1 ~ 1.10	.80
2.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장애관련기사관심, 편의 시설설치, 사회적 관심과이해, 인격적존중, 필요한사람, 장애이해교육필요, 사회봉사활동확대, 친하게지냄, 수행 평가 도와줌, 불편함 배려.	10	2.1 ~2.10	.85
3.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교실질서유지, 통합교육의단점, 일반학생피해, 통합교육이 도움됨, 통합시손해 본다, 생활능력향상, 부끄럽지않다, 분리 교육, 친절히 가르쳐 준다, 병문안을간다.	10	3.1~3.10	.75
전체		30		.90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절차 계획을 설계한 다음,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실제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3년 10월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비조사의 단계를 거친 다음 척도의 신뢰도 및 설문지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일부 문항을 수정, 추가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차 문항 제작 후 주제적합성, 문항이해도에 관해 특수학급교사 2인과 특수교육 전문가 1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일반학생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단어이해

dCollection @ chosun

정도, 응답 방법, 응답 시간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문항을 완성하였다.

예비조사의 단계를 거친 다음 본 조사의 연구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 까지 각 중학교 별로 본 연구자가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각 학급 담임선생님께 배부하고 회수해 주도록 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성별, 통합학급 유무에 대하여 독립변인 t-test를 실시하였고, 학교성적, 집안 경제상태 변인에 대하여서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21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05수준에서 검증하였다. Scheffe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Ⅳ. 연구 결과

1.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전반적인 인식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은 어떠한지 전체와 각 하위영역에서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

(N = 400)

영역	문항	최소값	최대값	*m*	*SD*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10	1.1	6.0	3.2	.59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10	2.0	5.0	3.6	.53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10	1.4	4.7	3.1	.49
계	30	1.5	5.2	3.3	.51

<표 Ⅳ-1>에서 보면,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수준은 전체적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3.3으로 중립적인 수준(3.0)에서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하위영역에서 보면,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었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2.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전체와 각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2>과 같다.

<표 Ⅳ-2>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

(N = 400)

영역	집단	*n*	*m(SD)*	*t*	*p*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남	198	3.17(.63)	-2.134	.033
	여	202	3.30(.55)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남	198	3.52(.59)	-3.736	.000
	여	202	3.72(.45)		
지체장애인에 대한 친구관계	남	198	2.99(.52)	-4.851	.000
	여	202	3.22(.43)		

<표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의 평균은 3.17 여자집단의 평균은 3.30이었다. *t*-검정결과 남녀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영역에서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의 평균은 3.52 여자집단의 평균은 3.72이었고 t-검정결과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심과 배려에서 더 긍정적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에서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의 평균은 2.99 여자집단의 평균은 3.22이었다. t-검정결과 남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에서 긍정적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의 차이가 있는지 전체와 각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

(N = 400)

영역	집단	*n*	*m(SD)*	*t*	*p*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경험유	259	3.09(.41)	-.514	.608
	경험무	141	3.11(.36)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경험유	259	3.63(.52)	.433	.665
	경험무	141	3.60(.55)		
지체장애인에 대한 친구관계	경험유	259	2.99(.31)	.948	.344
	경험무	141	2.95(.35)		

<표 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영역에서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09(SD=.41),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dCollection @ chosun

3.11(SD=.36)이었고 t-검정결과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영역에서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63(SD=.52),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3.60(SD=.55)이었다. t-검정결과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에서의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2.99(SD=.31),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2.95(SD=.35)이었다. t-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Collection @ chosun

4.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의 차이가 있는지 전체와 각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표 Ⅳ-4>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

영역	집단	*n*	*m(SD)*	*F*	*p*	*scheffe*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상위권	80	3.12(.45)	2.821	.061	·
	중위권	220	3.06(.38)			
	하위권	100	3.16(.35)			
	계	400	3.10(.39)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상위권(a)	80	3.71(.56)	4.701	.010	a,b>c
	중위권(b)	220	3.65(.51)			
	하위권(c)	100	3.49(.49)			
	계	400	3.62(.52)			
지체장애인에 대한 친구관계	상위권	80	3.00(.33)	2.279	.104	·
	중위권	220	3.00(.31)			
	하위권	100	2.92(.35)			
	계	400	2.98(.33)			

<표 Ⅳ-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영역에서의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성적이 상위권 집단의 평균은 3.12(SD=.45), 중위권 집단의 평균은 3.06(SD=.38), 하위권 집단의 평균은 3.16(SD=.35)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학교성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

dCollection @ chosun

에 대한 관심과 배려' 영역에서의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성적이 상위권 집단의 평균은 3.71(SD=.56), 중위권 집단의 평균은 3.65(SD=.51), 하위권 집단의 평균은 3.49(SD=.49)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학교성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상위권(a)과 하위권(c), 중위권(b)과 하위권(c)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영역의 학교성적별 차이에서는 상위권 집단이 인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에서의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성적이 상위권 집단의 평균은 3.00(SD=.33), 중위권 집단의 평균은 3.00(SD=.31), 하위권 집단의 평균은 2.92(SD=.35)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학교성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Collection @ chosun

5. 경제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경제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의 차이가 있는지 전체와 각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5>과 같다.

<표 Ⅳ-5> 경제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분석

영역	집단	*n*	*m(SD)*	*F*	*p*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상	80	3.06(.43)	1.222	.301
	중	280	3.10(.37)		
	하	40	3.0 (.42)		
	합계	400	3.10(.39)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상	80	3.70(.57)	.950	.435
	중	280	3.62(.50)		
	하	40	3.55(.49)		
	합계	400	3.62(.53)		
지체장애인에 대한 친구관계	상	80	3.10(.41)	1.359	.247
	중	280	2.98(.33)		
	하	40	2.96(.26)		
	합계	400	2.98(.33)		

<표 Ⅳ-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안 경제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영역에서의 집안경제 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안 경제가 상 인 집단의 평균은 3.06(SD=.43), 집안 경제가 중 인 집단의 평균은 3.10(SD=.37), 집안 경제가 하 인 집단의 평균은 3.0(SD=.42)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집안경제 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안 경제 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영역에서의 집안경제 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안 경제가 상 인 집단의 평균은

dCollection @ chosun

3.70(SD=.57), 집안 경제가 중 인 집단의 평균은 3.62(SD=.50), 집안 경제가 하 인 집단의 평균은 3.55(SD=.49)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집안경제 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안 경제 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하위 영역중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에서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안 경제가 상인 집단의 평균은 3.10(SD=.41), 집안 경제가 중 인 집단의 평균은2.98(SD=.33), 집안 경제가 하 인 집단의 평균은 2.96(SD=.26)이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에서의 집안경제 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Collection @ chosun

V. 논 의

연구 문제 별로 분석결과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전반적인 인식

본 연구의 결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전반적인 인식은 5점 척도에서 3.3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홍성윤(2002)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인지 태도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 이진숙(2002)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재국과 손상희(2004)는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초· 중등학생의 태도 연구에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한준호(2008) 역시 초등학생의 수용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이었으며, 중학생의 수용태도가 가장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대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의 위기, 심리적 이유기, 이유없는 반항기(권성혜, 2002), 신체적 급변과 정서의 가변성, 사회적 미성숙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장헌, 2000). 급속한 신체적 변화과정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동시에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게 되어 내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김세봉, 2005). 중학생들은 발달과정상 이러한 변화와 갈등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이며, 신체적 외모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적인 장애가 두드러지는 점 등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박재국, 손상희, 2004) 할 수 있다. 중학생 시기에 또래 문화는 그들의 사회성 및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

dCollection @ chosun

을 수행하게 된다.(김하연, 1991).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중학생 시기에 각자가 스스로를 수용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또래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이해교육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정서 및 심리적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본 연구 결과 여학생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에서 모두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길혜옥, 2005; 권은애, 2008; 송말순, 2003; 이종남, 1994; 이진숙, 2002; 이철원, 2000; 이태훈, 2007; 이헌상, 2007; 최숙자, 2004; 천인현, 2005)보고하고 있다. 이는 정은미(2007)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학생들이 더 감성적이고 더 동정적인 성격의 특성이 강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3.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통합학급 경험 유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과의 접촉경험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비장애 학생이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강행, 2006; 천인현, 2005; 홍지청, 2002). 이병갑(2005)의 초등4,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통합경험을 한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dCollection @ chosun

본 연구의 결과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 모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권은애(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태도에서 학교생활영역, 개인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모두 통합교육을 경험한 학생과 통합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김종삼(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서 통합교육경험이 있는 비장애학생이 통합교육 경험이 없는 비장애 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지체장애 학생들은 경증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증의 지체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정도에 따른 통합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통합학급 경험은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를 길러주며, 비장애 학생은 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적응 하는데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비장애 학생들이 여러 장애유형 또는 장애 정도를 가진 학생들과의 경험을 학령기때 하는것은 성인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장애 학생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고 장차 함께 살아가는데 어색함이 없도록 정규 교육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 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에서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에서는 학교성적 상위권집단이 인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태훈(2007)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학교성적과 친구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최지경(2004)은 학교성적과 친구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은희(2005)

dCollection @ chosun

는 학교성적 수준에 따라 친구관계의 대인적 태도 및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서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진수(2009)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청소년의 인식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며 혼란과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했다. 이태훈(2007)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성별, 학교성적, 대처기제,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 등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냈는데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5. 경제 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경제 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에서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혜진(2005)과 유창숙(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장애관련학과와 비장애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부모님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미(2006)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dCollection @ chosun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은 중립적인 수준(3.0)에서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지체장애인을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견지하기는 힘들지만, 함께 통합학급에서 생활하거나 학습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지체장애인을 학우로 인식하고 이해 하려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남녀별 인식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학급 경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넷째, 학교성적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의 차이는 하위영역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체장애인과의 친구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교성적 상위권집단이 인식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상태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보다 나은 중학생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첫째, 본 연구는 전라남도 M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보편적이고 확대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Siller 의 장애태도 요인분석 척도를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적합하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통합교육 경험 유무가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이 긍정적인 장애인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제도 아래에서 장애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매체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왜곡 되거나 바르지 못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곡된 정보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지체장애인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꾸준한 계몽운동을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대중매체에서는 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에 변화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학생의 성별을 고려한 장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앞의 연구 결과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가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사회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성별에 맞는 장애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의 변인을 성별, 통합

dCollection @ chosun

학급의 경험유무, 학교성적, 집안경제 상태에만 국한하였기 때문에 인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인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를 한다면,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d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강일조(2004). 원불교 교무들의 장애 인식에 관한 연구.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제27집. 295-326.

강호진(1986). 지체부자유 학생의 자아개념 특징.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선희(201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본권, 김동연, 김영욱, 김원경, 박화문, 석동일, 유점룡, 정재권, 정정진, 조인수(2004). **특수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국립특수교육원(2005).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이해. 94-103.

국립특수교육원(2012).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기초 연구.

권성혜(2002).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에 내제된 성의식·성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도현(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도서출판 메이데이.

김동배(2000).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학지사

김동수(2012). 지체장애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행동의 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봉(2005). 지체장애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대처방안 비교를 통한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2012). 장애인의 대인관계 특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경(2007). 일반 고등학생의 장애인대상 자원봉사 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숙(2005). 지체부자유 학생의 특성과 지원방법. **국립특수교육원**. 104-105.

dCollection @ chosun

김유희(2005). 고등학생의 가정의 가치 지향성 및 장애접촉 경험 유형과 장애 인식과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진(1992). 지체장애 청소년의 레크레이션 활동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장헌(2000). 초등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권(1995). 통합교육 패러다임 이동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전략. **특수교육학회지**. 16(2). 5-32.

김정연, 유선화(2009). 통합된 여가 프로그램이 중도 지체장애학생에 대한 일반중학생의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복·지체건강장애연구.** 52(3). 69-89

김정효(1990).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일반 동료들의 수용태도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삼(2000). 통합교육 경험, 학년, 성별에 따른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영(2002). 통합교육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와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홍, 박재국, 이미경(2013). 지체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방향성 탐색 기초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3). 201-230

김태성(2005). 청소년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오(2002). 일반교인들과 장애인의 상호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하연(1991).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비행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dCollection @ chosun

김현숙(2011). 통합교육 경험이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논문.

김현식(1991). 지체장애아의 성격특성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길혜옥(2005). 고등학교 통합학급 학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수용태도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광희(2003). 비장애 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승현(1999). 비장애 아동 태도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수경(1992). 장애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직장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명경미(2006). 중증 지체장애학생의 건강관리실태 및 지원체계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동팔(1996). 장애인의 이미지 형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종사자 인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은식(1975).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 조사. 서울 : **장애자 복지관 재활연구** 3권. 91-123.

박성희(2003) 청소년 비행의 개인 특성, 가정및 학교요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승희(1994). **정신지체 : 정의, 분류, 지원의 체계**. 서울. 교육과학사.

박원희(2004). 척수장애인의 여가 제약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경(2005).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혜, 김정연(2011). **지체장애 학생교육.** 학지사.

dCollection @ chosun

박재국, 손상희(2004).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태도.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제 44호. 155-182.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배형일, 오원석, 이윤미(2009). 장애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장애 인식 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11(1). 83-104.

백영태(2011). 전문계고등학교 통합학급 일반학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수용태도에 관한 상관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형의(2005). 정신보건 영역 자원봉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한국정신보건 사회산업학회지**. 제 21집. 60-89.

서동명(1999). 발달장애 청소년과의 통합활동을 경험한 일반 청소년의 장애태도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정대(1985). 신체장애자에 대한 의식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홍배(2011).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필기 보조기구 디자인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석사학위논문.

송준만.유효순(1990). **특수아동교육**. 교문사.

신수진(2007). 인지행동 수정이 경도 지체부자유 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영희(2005). 지체장애 청소 년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원석(2011). 예비교사들의 장애인식, 통합교육 태도 및 우려 간의 관계 분석. **중복 · 지체부자유연구** 54(2). 115~142

유창숙(2012).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규태(1981). 장애자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 복지.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서울. 52-4.

dCollection @ chosun

이소현, 박은혜(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 학지사.

이종남(1994).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익섭(1990). 한국장애자 문제의 이해. 현대사회의 장애인복지. **서울 특별시립 남부 장애자종합복지관**, 서울. 2-4.

이소현, 박은혜(2001).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이유미(2006). 장애관련학과와 비장애 관련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장애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2005).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관한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수(2009).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청소년의 인식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진숙(2002).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조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철원(2000).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 연구 태도 연구. **한국 특수 체육 학회지**. 8(2). 59-71

이태훈(2007). 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숙(2003).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양호(2007). 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태도 비교.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선화(1993).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옥희, 이희경(2004).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과 비전공대학(원)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2). 187-206.

dCollection @ chosun

정재권 · 안병즙(2001). **지체부자유아의 심리이해**. 서울 : 양서원

조경희(2000). 부분통합교육을 받은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상호인식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소희(2014).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이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용준(2007). 지체장애 청소년의 정보인식, 정보접근 및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정(2008). 지적장애청소년에 대한 비장애 청소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좌혜진(2005).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 고등학생의 인식과 태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인준(2009). 천주교 장애인부 활동에 따른 일반신자의 장애인 인식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최국환(2000). 한국 재활기관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 **직업 재활연구**. 10(2). 81-91.

최국환(2003). 한국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연구. **특수교육연구**. 10(2). 72-83.

최지경(2004).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옥(2011). 통합교육의 성공요인 및 저해요인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태용(2011).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친밀감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철(1998). **청소년학개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한영숙(2001). 대학생들의 장애인 접촉 경험과 장애인 편견과의 관계. 대구대

dCollection @ chosun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01). 한국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 1984년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한 장애인 연구서.

한준호(2008). 통합교육에 따른 비장애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 진(2011). 통합된 중학생에 대한 일반중학생의 수용태도 관련 요인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윤(2002).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대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봉선 · 남미애(2004). **청소년 복지론**. 서울 : 양서원.

Choi & Lam, C. S.(2001). Korean students' differential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 An acculturation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ion Research. 24*. 79-81

Clough, P., & lindsay, G. (1991). *Intergration and the support service*. Slough: NFER.

Esposito, B. B., & Peach, W. J.(1983).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rson. *Exceptional Children*, 49, 361-363.

Fortini, M.E.(1987)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students with handicaps by their nonhandicapped pee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7*, 78-84.

Forlin, C. (1995). Educator's beliefs about inclusive practices in Western Australia.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s, 22*, 179-185.

Room, R. Rehm, J., Trotter, R, T., Paglia, A. & Ustun, T. B. (2001). Cross-Cultural views on stigma, valuation, party, and social values towards disability. In: Ustun, T. B., Chatterji, S., Bickendbach, J.

dCollection @ chosun

E., Trotter, R. T., Room., Rehm, J. and Saxena, S.(Eds.) *Disabiliyt and Culture: Universalism and Diversity*. Seattle: Hogrefe and Huber Publishers.

Sheare J. B. (1974). Social acceptance of EMR adolescents in integrated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8*, 678-682.

Thomas, A. (2000). Stability of Tringo's hierarchy of preference toward disability groups ; 30 years later. *Psychological Report*. *86*(2), 1155-1156.

dCollection @ chosun

부 록

지체장애인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지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참고로 지체장애인이란 몸을 지탱하거나 팔다리 움직임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학생여러분의 성의 있는 대답은 특수교육 발전은 물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정종숙 드림

dCollection @ chosun

※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귀하의 학교 성적은?
① 상위권 ② 중위권 ③ 하위권

4.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은?
① 있다 ② 없다

5. 지체장애인과 같은 학급에서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가?
① 있다 ② 없다

6. TV에서 장애인 이해 프로그램 시청 경험은?
① 있다 ② 없다

7. 귀하의 집안 경제 상태는?
① 상 ② 상중 ③ 중 ④ 중하 ⑤ 하

8. 지체장애인 중 성공한 사람을 1명 정도 알고 있는가?
① 있다 ② 없다

dCollection @ chosun

※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당 칸에 ∨표로 체크해 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지체장애인은 의존성이 있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1-2	지체장애학생도 상급학교(대학)에 가서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1-3	지체장애인은 위생상태가 불결하다					
1-4	대부분의 지체장애인은 일하길 원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1-5	지체장애학생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1-6	지체장애인을 접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목발, 휠체어, 의수등이 내게 낯설고 거부감이 든다					
1-7	만약 나의 친구가 나에게 지체장애인을 소개시켜 준다면 불쾌할 것이다					
1-8	지체장애인과 결혼을 하면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1-9	경우에 따라서 지체장애인을 도울수는 있어도 이성으로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10	같은 학급 또는 학교에서 지체장애학생과 지내게 된 후 예전에 비해 이들에 대해 친근감이 든다					

dCollection @ chosun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신문이나 방송에 장애인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본다					
2-2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학교에 많이 설치 되어야한다					
2-3	지체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2-4	지체장애인도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2-5	지체장애인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 소질을 살려 주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6	지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 이해 교육이 꾸준히 필요하다					
2-7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2-8	지체장애 학생도 일반학생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2-9	조별로 수행 평가시 지체장애 학생과 같은조를 하면서 도와 주겠다					
2-10	내가 지체 장애인을 만나면 그들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겠다					

dCollection @ chosun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교실에서 지체장애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교실질서를 유지하기 힘들다					
3-2	지체장애인과 함께 교실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3-3	지체장애 학생이 일반학생을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3-4	수업시간에 지체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것 같다					
3-5	선생님이 지체장애 학생에게 많은 관심을 주어야하므로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3-6	지체장애 학생은 일반학생과 같이 공부함으로써 사회생활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3-7	등하교 길에 지체장애인 친구와 함께 다녀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3-8	지체장애인들은 그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3-9	지체장애 친구가 수업 내용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히 가르쳐 주겠다					
3-10	만약 같은 반 지체장애인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나는 병문안을 갈 것이다					

끝까지 정성껏 답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dCollection @ chosun